

우리가 바라볼 것

만민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히 지켜 하나님께
서 기뻐하시는 참 자녀로 나와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막달라 마리아의 선 (1)

막달라 마리아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부모나 형제를 원망하지 않
고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선한 마음을 소유했다.

생각, 확 바꾸고 싶으시죠?

진리로 생각이 바뀌면 신앙의 열매가 달라진다. 신속한 영적 성
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생각 바꾸기'를 소개한다.

주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

손수건 기도로 C형 간염이 치료된 파키스탄 타리크 전도사와 주
님께 집중하니 삶이 흥통하다는 고3선교회 신성제 형제 간증.

만민뉴스

제585호 2013년 6월 9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천국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젊은이들

가나안·청년·빛소금·학생 헌신예배

지난 6월 2일 주일 저녁예배 시 가나안·청년·빛과소금선교회와 학생주일학교 헌신예배가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었다.

이날 예배는 마산, 대전, 광주, 여수, 공주, 천안, 청주, 구미, 거제, 울산, 서산, 밀양, 창원, 무안, 통영, 서부산 만민교회 등 전국 지교회와 170여 개국에 송출되는 GCN 방송(www.gcntv.org)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동참한 가운데 드러졌다.

젊은이들이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헌신자 전체는 온 마음을 다해 만민 찬양 '마지막 때의 섭리', '권능 3' 곡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크고 놀라운 권능을 찬양했다.

강사로 선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우리가 바라볼 것'(골 3: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이 땅의 썩어질 육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천국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영육 간에 축복을 받으며, 천국의 가장 영광스러운 처소인 새 예루살렘을 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일깨워 준 이번 헌신예배는 천국 소망과 비전으로 충만한 시간이었다(사진은 4개 연합 헌신자 전체 특송).

장받는다. 또한 병약하고 멸시받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자기 민족에게 미움을 받던 세리 마태, 또 배움이 없는 어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존귀한 사람이 되었듯 소중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위엣 것에 투자하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소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죄로 관연한 세대 가운데 사는 만민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히 지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자녀로 나올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기도와 금식, 예물 등 정성 다한 행함으로 준비해 예배를 드린 헌

신자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며 새 예루살렘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게 됐다."라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했다.



강사 정명호 목사(왼쪽 위 사진, 강단에서 왼쪽의 '믿음의 분량' 강의를 들으며 필기하고 있는 목회자들

정명호 목사,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 5개 도시 선교

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가 콩고민주공화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동부지역 5개 도시에서 초교파적으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지난 5월 6일부터 16일까지 부니아, 부렘보, 베니, 고마, 부까부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됐다. 강사로 초청된 정명호 목사는 우리 교회의 세계 선교 현황과 예수교연합성결회 총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한 권능의 사역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이 목사의 대표 설교 중 하나인 '믿음의 분량'(롬 12:3)에 대해 강의했다.

각 교단의 총회장들과 대표 목회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점검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세미나 개최를 통해 우리 교회와 함께 사역하기를 희망했다. 참석자들은 교과를 초월해 모인 세미나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교단들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세미나 시 정 목사의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로 질병이 치유되고 말씀에 은혜받은 간증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한편,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연인원 7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수도 킨샤사 '승리의 거리 1997'에서 '2006 이재록 목사 초청 연합대성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당시 이 목사는 대통령 초청으로 대통령궁에서 조셉 카빌라 대통령과 환담을 나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처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가복음 7:37~38)

막달라 마리아의 선 (1)

에 깊이 빠져 어둠이 완전히 그 마을을 사로잡고 있었지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 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라고 기록된 대로 막달라 마리아 역시 귀신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 들렸다고 표현한 것은 그녀의 부모를 비롯해 가족이 우상을 섬기는 데 주력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그 가정에 많은 저주가 임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로 되는 일이 없었지요.

이처럼 마리아는 영적으로 최악의 환경에서 태어난 데다가 기마져 약해 자라면서 갖가지 병을 앓았습니다. 위장에 병이 생겨서 제대로 먹지 못하니 몸의 모든 기능도 제대로 되지 않아 외모도 흉하게 변해 갔지요. 여기에 피부병까지 얻어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점차 쇠약해 가니 경수마저 끊어져 여인으로서는 기능도 상실했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늘 집안에 숨어 지내며 마치 없는 사람처럼 자신을 낮추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부모 형제의 냉대와 업신여김까지 받았지요. 그러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마치 자신 때문인 것처럼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부모 형제에게마저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단 한 번도 부모 형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는 길이 무엇일까? 나 때문에 가족이 받는 부담을 어떻게 하면 덜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결국 집을 나오게 됐지요. 그러나 딱히 갈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며 얻어먹고 거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2. 한 남자를 만나 불행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 탓으로 돌린 선

막달라 마리아는 한 남자를 만나서 자기 한 몸이나마 의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도움은커녕 오히려 힘들게 하

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해 주거나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연약한 그녀를 이용했습니다. 빈둥빈둥 놀면서 도박에 빠져 그나마 있던 돈마저 잃으면 마리아에게 돈을 구해 오라고 옥박지르고 욕하며 때리기 일쑤였지요.

이 남자는 마리아에게 얹혀 살면서도 고마워하기보다 오히려 마리아를 천대하고 멸시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병투성이냐.” 하고 구박하며 일이 자기 원대로 되지 않으면 혈기와 신경질을 내며 마리아를 욕하고 때리는 것으로 화풀이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악하다 보니 많은 범죄도 저질렀지요. 그러다가 그런 일들이 들끓나면 그 찻값을 전부 마리아 탓으로 돌렸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죄투성이에다가 매우 탐욕적이고 계략이나 꾸며 남자를 조종해 벌어먹고자 하는 여자로 인식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그 남자의 잘못을 자신이 책임져 나갔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큰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답니다. 날로 마음의 고통이 커져 갔고, 몸은 더 나빠졌지요. 사람들은 이 여인의 곱고 아름다운 심성을 보지 못하고 삿대질하며 저주스러운 여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남자에게 핍박과 매를 맞고 조롱과 무시를 당하면서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눈물로 보내며 주저앉아 있지 않았고, 그 남자를 오히려 불쌍히 여겨 하루하루 삭바느질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3. 예수님을 만나 모든 질병과 고통, 불행에서 해방된 마리아

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드디어 희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지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병어리를 말하게 하는 등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선지자 같은 위대한 분이 오셨다. 어느 마을에 오셔서 어떤 병자가 치료받았다.”는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이 선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다 믿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린 예수님이신데 어찌 마리아에게서 믿음의 고백이 안 나왔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마리아를 어찌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져 주시자 그 즉시 모든 것이 치료됐습니다. 이제 먹는 대로 소화가 되니 힘이 오고 몸의 기능이 모두 정상에 됐지요. 끊겼던 경수도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은 바로 상처난 마음이 치유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서도 받아 보지 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었지요. 여태껏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받아 보지 못했던 가장 큰 선물을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마리아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온 마음이 예수님께 향해 ‘이 세상에서 나를 버리지 않은 단 한 분, 나를 사랑하는 단 한 분, 그렇게 비참한 내 모습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치료해 주시며 내 영혼까지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평생토록 생명 다해 섬기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모든 것을 떨쳐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모든 시간과 정성을 드렸지요. 치료받아 건강을 되찾았으니 더 많은 일을 하며 자기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눅 8:2~3).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최악의 가정 환경 속에서도 부모나 형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를 만나 죄인 취급을 당하며 멸시 천대를 받아도 오히려 자기 탓으로 돌리며 뒷바라지에 힘썼지요. 결국 그녀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마음을 일궈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해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빛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가장 깊은 구렁이 속에서 아무 삶의 낙도 소망도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에게 조차 냉대와 구박을 받으며 집에서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지요. 이에 자기 한 몸 의지해 보고자 만난 남자는 도박꾼에다 때리고 욕하는 매우 악한 자였습니다. 이처럼 칠혹같이 어두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은 뒤 향유를 부어 드렸지요. 자신의 전부를 다해 섬기며 예수님을 따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뵈는 영광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환경에서 태어나 불행한 삶을 살았던 마리아가 어떻게 그토록 진한 선의 향기를 발할 수 있었을까요?

1.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부모 형제를 원망하지 않은 선

마리아는 갈릴리 주변 ‘막달라’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기에 구분하기 위해 그녀가 살던 지역 이름을 붙여 불렀지요. 막달라 지방은 꽤 번성한 어업의 중심지로서 대대로 우상숭배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우상숭배



- 교회 주소는 길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지역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대·용인대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자녀예배 3:00 PM
공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사백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넉넉지 않은 가정에 태어나서 버스 요금도 없고
참 내 신세가 처량하다.'
온 세상 짐을 다 진 것처럼 축 늘어져
짜증을 내면서 힘들게 걸어간다.
'아, 힘들다. 한 정류장 걸었는데 또 몇 정류장을 더 걸어가야 되나.'
집에 도착하니 몸이 녹초가 된다.

A

어느 날, 두 사람이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것이다. 집이 먼 거리임에도 걸어가야만 했다. 이때 두 사람은 각각 어떤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

'아이고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몸이 좀 지뿌듯했는데
오늘 운동 한번 해 볼까?'
즐거운 마음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
'벌써 다섯 정류장을 왔네. 열 정류장도 걸을 수 있겠어.'
집에 도착하니 몸이 날아갈 듯 상쾌하다.

B

신앙생활의 비결! 생각 바꾸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생각을 어떻게 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생각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생각은 바꾸고 싶다고 해서 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바뀌려면 먼저 비진리의 생각들을 깨뜨리고 마음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고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잠시 바뀌는 것 같다가도 원상복귀가 되고 만다. 그렇다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한다. 삶의 지혜가 기록된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했다. 선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반대로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죄악을 버리고 성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비진리의 생각들을 깨뜨리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HOW 1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자!

주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이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변화될 자신과 이후에 받게 될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을 배신했다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하며 고통받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며 영적인 사랑을 사모함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 땅의 육적인 사랑은 자기 유익을 좇아 변질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으신 참 사랑이야.’ 하고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백한다. 어려운 환경을 통해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대성 체험을 통해 마음 중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된다.

만일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면 이를 통해 더 성숙해져 무엇이든지 포용하는 넉넉한 마음이 될 것을 바라보라.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도 선교회에 전도하고 열심히 심방해 주는 일꾼이 없다면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모든 상황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믿고 행하는 모든 것 위에 축복으로 함께하신다.

이 외에도 마음의 성결을 이루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악으로 인해 상심하고 낙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연단을 통해 더 신속히 변화될 자신을 생각하며 감사하라. 로마서 5장 3-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말씀한 대로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할 때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다.

HOW 2 생각의 길을 바꾸자!

생각은 하나의 습관이므로 어떤 것을 보면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예를 들어 활달한 사람을 보면서 ‘까분다.’라는 생각이 순간에 스친다면 이는 평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느껴서 살았기 때문이다. 또한 자꾸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육신의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지 못해 더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로 인해 만들어진 그 길을 바꾸기 위해 먼저 생각의 문을 차단하는 훈련을 해보자. 자신을 객관적으로 놔두고 그 주변을 문으로 차단한 상황을 연상하며, 비진리의 생각이 오면 차단하고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생각의 문을 차단하는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한 번만 그 문을 차단해도 더 이상 생각이 밀고 들어오지 못한다. 이와 더불어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했기에 육신의 생각으로 난 길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자신의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같이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능력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자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답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찰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다.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영적인 답은 찾을 수 없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육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물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사소한 것 하나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습관처럼 해오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한다면 생각의 길도 바뀐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불같은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6

June

2013.6.9~6.15

주요 프로그램 안내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십자가의 도 8-12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3-7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2-4
- 의와 인과 신 1-2
- 창세기 강해 99, 9-13
- 공부 잘하는 비결 9-11
- 죄와 뿌리와 성결 1-2

GCN TV 설교

-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7-8 [이수진 목사]
- 내가 시행하리니 1-3 [이수진 목사]
- 사랑으로 만든 공의-은혜 1-2 [이희선 목사]
- 지극한 사랑 [이미영 목사]
- 노력하는 삶 [이미영 목사]
- 'GCN TV특강'
- 십자가의 도 14, 1-4 [정구영 목사]

간중 프로그램

- 크리스천 투데이 47-48, 2, 4-5
- GCN 간중 스페셜 1, 15-18, 20

해외성회 시리즈

- 인도연합대성회 2
- 페루연합대성회 종합편

찬양 프로그램

- GCN 파워프레이즈(2) 10-14
- 찬양과 경배 (3) 31-35, 37-38
- GCN 금요찬양 스페셜 17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타리크 카라마트 전도사 (파키스탄 CCCI교회)

저는 파키스탄 CCCI(Christ's Commission Church International) 교단 소속 카라치 지역 CCCI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15일까지 이곳 파키스탄에서 예수교대한연합성결회 소속 대전만민교회 담임 길태식 목사님을 강사로 CCCI 주관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님은 지난 11년간 세미나와 집회를 인도하며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어 질병을 치유하며 무수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파키스탄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요.

목사님의 이번 선교 일정에는 라호르를 비롯해 셰이쿠푸라, 물탄, 카라치 지역에서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가 있었습니다. 영적 각성과 많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요.

저는 평소에도 30분도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CCCI 교단 프리모즈 샘슨 대표님은 카라치 지역 교회 오전 연

“고통스런 C형 간염을 손수건 기도로 치료받았습니다”

합집회 홍보 및 집회 준비를 제게 맡기셨지요. 이는 어찌하든 믿음을 내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제게 있는 질병을 치료 받아 영광 돌리기 바라는 대표님의 배려였습니다.

올해 초부터 저는 가끔 열이 나면서 온몸이 쭈시고 아팠습니다.

지난 3월 7일, 병원 검진 결과 C형 간염이었지요. 8개월간 하루 걸러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고 나면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지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고열과 함께 온몸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게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게 눌리는 증상이 있었지요. 이렇게 한 달가량

지나자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4월 8일 새벽, 저는 대표님에게

및 집회 준비를 제게 맡겨 주셔서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4월 11일 밤,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의 강사인 길태식 목사님을 영접하러 저의 가족과 성도들은 카라치 공항에 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무척 힘들었습니다. 기력이 없어 저는 강사님 짐도 옮겨드리지 못했지요.

숙소에 도착한 4월 12일 새벽 1시경, 프리모즈 샘슨 대표님은 길태식 목사님께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저의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길 목사님은 권능의 손수건을 제 머리에 얹고 기도해 주셨지요.

그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

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아주 편안하게 잘 수 있었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에는 몸이 가볍고 온몸의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후 계단도 뛰어 오를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4월 14일 주일, 마침내 CCCI 교단 주관으로 카라치 지역 교회 오전 집회가 성서침례교회(담임 쿠람 길 목사)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강사 길태식 목사님은 사람들이 성전과 마당까지 가득 앉고도 자리가 모자라 많은 사람이 돌아갈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설교 후 전체를 위한 환자기도를 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요. 저도 믿음으로 기도받은 후 몸이 더 강건해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감사한 마음으로 길 목사님이 출국하시는 날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이제 C형 간염으로 인한 심한 빈혈도 사라져 혈액이 좋아지고, 식事も 잘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끊고 주님만 바라보니 축복이 넘쳐요” 신성제 형제 (고3선교회) 그 해 7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학생들을 위해 주일 저녁 예배 후 인도하시는 미은사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학생들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 바르고 깨끗하게 성장하며 학생으로서 공부와 병행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함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며 지옥가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회장님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는 안 되겠다.’며 새로워질 것을 결단했습니다. 이후 술, 담배, 세상 오락이 있는 기숙사생활이 싫어졌지요. 이성 친구도 정리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생활을 청산하고자 운동 종목도 유도로 바꿨지요. 2011년 3월, 유도부가 있는 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로 전학했습니다. 그 후 운동은 물론, 공부와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지요.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전교 1등을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사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무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미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침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아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